임직원과 '연내 100번의 소통' 첫 걸음 뗀 최태원

각본 없는 90분 김밥토크 "이런 회장, 또 없습니다"

최태원 SK회장, 서린사옥 방문
업무 지장 없는 점심시간에 열려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 위한 자리"

SK 최태원 회장이 행복 토크에 참여한 임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

SK 최태원 회장이 '행복토크'에서 임직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SK

SK 최태원 회장이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행복을 논의했다.

SK는 지난 8일 최 회장이 서울 서린사옥을 방문해 구성원 300여명과 '행복 토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구성원들이 직접 의견을 올리고 최 회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일 그룹 신년회에서 올해 임직원들과 100번 이상 만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100번 토론'의 첫 걸음이다.

이날 행사는 점심시간에 열려 참여도가 높았다. 최 회장은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점심시간에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에는 김밥과 샌드위치가 제공됐다. 임원들도 계단이나 바닥에 앉아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사전 각본없이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최 회장은 이날 구성원들과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준비했다. 직접 신고 온 형형색색 양말을 보여주면서 행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저 말고 추천해달라고 분위기를 이끌었다.

워라밸이 어떻냐는 질문에 "제 워라밸은 꽝"이라고 대답해 웃음을 전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직장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직과 제도, 사람을 바꾼다고 긍정적 변화가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통을 통해 작은일부터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간극을 줄여야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성원 스스로도 함께 고민하고 디자인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행복이 외부 이해관계와 상충한다는 선입견을 갖지 말자며, 외부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공유 및 공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격려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구성원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기념 촬영을 했다.

최 회장은 "구성원과 올해 100회 소통하는 것이 제가 행복만들기를 실천하는 방법이며, 여러분들도 각자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달성함으로써 다 같이 '행복 트리(tree)'를 만들어 가자"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SK 관계자는 "단순히 SK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 소통 경영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는 경영 현장을 찾아 소탈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한글로 된 갤럭시 광고, 프랑스에 뜬다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옥외광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19' 한글 옥외광고를 11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외국어가 아닌 한글로 옥외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한글 옥외광고를 통해 모바일 발전을 주도해 온 한국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향후 갤럭시가 선사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높일 예정이다.

'미래를 펼치다'라는 문구는 갤럭시 출시 10년을 맞이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혁신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이월이십일'은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이 공개되는 날짜다.

갤럭시 언팩 2019는 다음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19' 한글 옥외광고를 1월 11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진행한다. /삼성전자

삼성 공기청정기 '큐브', 아토피 완화 입증

오재원 한양대 교수 연구팀 임상
"실내 공기질 관리로 질환 개선"

한양대학교 오재원 주임교수가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큐브'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큐브'가 소아·청소년 질환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한양대학교 오재원 주임교수 연구팀과 '공기청정기가 알레르기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팀은 8주간 실험을 통해 실험 대상이 큐브를 사용해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비염, 천식 증상을 호전할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39명이 사용 면적 90㎡에서 큐브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비교해 확인했다. 2주 간격으로 사용과 미사용을 반복했고, 자동모드나 강풍으로 24시간 상시 작동 조건이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아토피 증상을 평가하는 지표인 'SCORAD' 평균수치가 큐브 사용시 19.8로 미사용시 평균인 23.8보다 15.2% 줄었다.

알레르기 비염도 'TNSS'가 평균 4.1에서 2.9로, 'ASC'가 평균 2.1에서 1.0으로 줄었다. TNSS와 ASC는 콧물과 코막힘, 기침 등 증상을 나타내는 지표다.

삼성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큐브가 실내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호흡기와 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김재웅 기자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리더스옥션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네이버, 생활환경지능 기술 전세계인 인증받아

CES 2019

4일간 5000여명 관람객들 몰려
LG전자와 로봇 공동연구 합의도

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19'에 처음으로 참가한 네이버가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행사를 끝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위치와 이동 기반의 '생활환경지능 기술을 선보인 네이버·네이버랩스의 부스에는 4일 동안 5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개방형 야외 부스로 설계돼 별도로 관람객 수를 세지는 않았지만, 기념품으로 제공한 5000개의 에코백이 모두 소진되어 실제 관람객은 5000명을 훌쩍 넘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5G 브레인리스 로봇 제어에 성공한 엠비덱스와 실내 자율주행 가이드 로봇 어라운드G의 시연 시간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한동안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엠비덱스의 시연을 지켜본 결과 많은 관람객들이 시연이 진행될 때마다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LG전자와는 CES 기간 중 전격적으로 로봇 기술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네이버 관계자가 로봇팔 엠비덱스를 시연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